

“한국은 美 맹신 말고 주변국 네트워크 강화해야”

고든 레어드 저널리스트



가격 파괴의 저주 / 고든 레어드



가격 파괴의 저주의 저자 고든 레어드는 소비 의존 경제의 꽃인 가격 파괴 상품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고든 레어드 제공

■ 책을 말한다 - 직격 인터뷰

90년대부터 불어 닥친 세계화는 다름 아닌 '시장의 세계화'다. 이 세계화는 동남아와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물건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유럽에 팔릴 수 있게 하여 할인점과 대형마트의 가격 파괴가 가능하게 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건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세계화는 좋은 게 아닌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고든 레어드는 '가격 파괴의 저주'(박병수 옮김/민음사/468쪽/2만 2천 원)를 통해 "값싼 물건들은 그것이 시장에서 팔리면 팔릴수록 궁극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한다. 이메일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가격파괴의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경제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1990년대 세계화는 값싼 물건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가격파괴는 불행히도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 고갈로 인한 석유 가격 상승, 임금착취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권리 향상 움직임, 그리고 지역 경제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세계화는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싸게 팔아 이익을 보았지만 에너지 고갈로 석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운송비용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 또 중국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 더욱 더 싸게 팔아 더 많은 소비자를 불러오던 소비 경제는 한계를 맞게 된 것이다. 더 나은 화석연료를 찾기 위한 개발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각종 공해도 덩어리 추가된다.

"북미 경제의 65%가량이 소비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할 수 없습니다. 소비에 기반을

둔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지요." 지속적인 값싼 상품 덕분에 집을 담보로 소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이제 더 이상의 소비가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은 미국보다는 인접국가 간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계화는 점점 축소되고, 각국은 보호무역에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무시했을 때 발생하게 될 잠재적 비용과 그 결과를 강하게 알수록 이러한 세계 경향에 대항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드물긴 하지만 이러한 시위는 종종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운동입니다." 시장의 세계화가 아니라 시민운동의 세계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이나 소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있을까? 그는 "미래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지금보다 더 싸게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는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운송비용과 상대국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에코놀로지나 재생에너지, 소비 효율 기술과 같이 기존 사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은 그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소비에 의한 성장을 맹신하지 마세요. 월마트 스토어도 현재 서구 시장 내에서의 성장은 담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시장-중국, 브라질 등 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또한 이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박진숙 기자 true@busan.com

■ 잠깐읽기

사람의 살로 빛은 도시

도시의 승리 / 에드워드 글레이저



도시의 승리 / 에드워드 글레이저

미국은 국토 면적의 3%에 해당하는 도시에 2억 4천3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인구의 도시 집중은 우리나라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엄청나게 넓은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은 도시를 선택해 살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 그만큼 '희망의 땅'으로 인식된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도시에도 그늘이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쓴 '도시의 승리'는 전 세계 도시의 흥망성쇠와 주요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한국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1960년대 퇴락한 도시 런던과 같은 소비도시의 부상에서 보듯, 도시는 아이디어와 자본이 순환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와 관련된 각종 규제와 보존정책의 유연한 변화도 주문한다.

하지만 그가 귀결하는 지점은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도시는 자연스럽게 번영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래서 도시가 콘크리트 숲이 아닌 사람의 살로 빛어진 혁신과 창조 공간으로 비쳐진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도시라는 그의 도시 예찬론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지음/이진원 옮김/해방/544쪽/1만 8천 원. 정달식 기자 doosil@

지금 후회하고 있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 윌리엄 헬름라이히



내가 왜 그랬을까 / 윌리엄 헬름라이히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 스트로스 칸 총재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여성 청소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차기 프랑스 대선 주자로 유력했던 그는 재판정에 출두하는 신세가 되면서 한순간 낙마로 떨어졌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유명인들의 스캔들을 보며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지 싶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를 지닌 이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짓을 했을까. 재미있는 건 당사자들도 '내가 왜 그랬을까'하며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는 인생을 망쳐 버린 유명인들의 치명적인 실수와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마음의 기저에 자리한 오만, 탐욕, 명예욕, 불안 등의 분류법으로 사례를 설명한다. 저자는 '내가 왜 그랬을까'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충고한다. 땅에 삽질을 하고 머리를 거꾸로 쳐박은 듯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가? 일단 머리를 빼고 자신이 한 '삽질'을 직시하라. 책 표지의 그림에 압축된 메시지이다. 윌리엄 헬름라이히 지음/남인북 옮김/말글빛남/296쪽/1만 3천 원. 이대진 기자 dirhee@

■ 맛있는 문장

깨달은 삶 깨달은 사람

"무아(無我)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없다고 하니, 나 없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식물인간쯤으로 상상하기도 한다. 무아는 나라고 할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인데, 이유는 원인과 조건으로 생겨나, 그러니까 인연생기(因緣生起)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이다! 이 부분이 연기(緣起)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핵심이다. 즉 연기된 존재이기에, 실제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버거의 눈앞에 있어 보이는 이것들이 사실은 본래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그러한 존재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34~35쪽)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간이 보인다. 공간이 잡히지 않을 때는, 생각을 바라보자. 그러면, 생각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 바라보는 것은 순수의식인 각성이고, 동시에 그 각성은 일정공간을 차지한다. 그것이 내면의 의식(마음) 공간이다. 그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과는 달리 무언가가 꼭 차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주시자를 강하게 의식하게 따라 점차로 커진다. 자세하게 관찰하면, 이 공간에서 생각, 느낌, 소리 등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외부 현상들까지도 이 공간에 담겨 있음을 본다. 일체 유심은, 이러한 마음 공간에 온 우주가 담겨질 때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그때, 일체가 마음임을 깨닫는다."(144~145쪽)



명쾌한 깨달음 / 백창우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왜 수많은 수행자들이 한 생을 걸고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을 명징하게 내리고자 시도하는 책이 '명쾌한 깨달음'이다. 구도자들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깨달음'의 실체는 사실 모호하기 그지 없다. 지은이가 말하는 깨달음은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것". 깨달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삶을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깨달음의 방법으로는 연기법 수행과 선법 수행이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의식을 활짝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 그럼 깨달음 이후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실상에 눈 뜰 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깨달음은 다름 아니라 의식이 성숙하는 궁극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의 의식과 행동은 바로고 건강하다. 깨달음은 그렇게 널리 전파된다. 백창우 지음/문주사/316쪽/1만 5천 원. 김진수 기자 ksw033@

■ 책꽂이

- 인문**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투퀴디데스)=기원전 500년, 페르시아 전쟁에서 공동의 승리를 쟁취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의 강자로 떠올랐지만 패권을 놓고 서로 또 다른 전쟁을 치른다. 그리스 황금기를 끝내버린 전쟁을 다룬 역사서. 천병희 옮김/숲/3만 8천 원.
 - ▲5분 서양고전(김옥동)=서양의 고전 속에 등장하는 글귀나 고사성어를 재미있는 사례와 더불어 알기 쉽게 풀어냈다. '악어의 눈물'과 같이 간간이 들어보거나 사용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용어를 주로 다뤘다. 작은 씨앗/1만 4천 원.
 - ▲유쾌한 420자 인문학(최준영)=페이스북의 인기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페이스북 뉴스피드란의 420자 한계 자수를 활용해 써내려간 칼럼을 모았다. 사회지도층의 비도덕성,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유쾌하게 비판했다. 이룸나무/1만 4천 원.
 - ▲인더그라운드 슈퍼스타(사람으로 읽는 한국사 기획위원회)=최재우, 박문수, 원효 등 역사의 비주류에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위인 5명의 삶을 재조명했다. 동녘/1만 3천 원.
 - ▲나는 나를 위로한다(이홍식)=35년간 현장에서 활동한 정신과 전문의의 심리 치유 에세이. 정신의학 대가의 솔직한 내면 고백과 자기치유법 등이 담겼다. '나를 살려낼 가장 강력한 예언자는 내 안에 있다'는 삶의 처방전. 초록나무/1만 3천 원.
 - ▲왕의 여자(김종성)=27명의 왕이 통치한 500년 조선왕조에는 모두 36명의 왕후(후궁 출신 4명 포함)와 101명의 후궁, 그리고 통계조차 없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다. 다양한 사료에 나타난 이들의 모든 것을 담았다. 역사의아침/1만 3천 원.
 -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한다(김상근 외)=한국교육 전반의 경제학적 문제 제기. 대학 개혁의 해법, 초·중등교육 개혁을 위한 제언 등에 관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생각을 담았다. 창비/2만 원.

- ▲확신의 함정(금대섭)=소설,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에피소드와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법과 정의의 딜레마적 상황을 소개한다. 한겨레출판/1만 2천 원.
- ▲젊은 음악가의 초상(이강숙)=어머니의 기대와 공부만을 강요하는 학교에 굴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성장소설. 민음사/1만 2천 원.
- ▲역사 소설, 자비에 빠지다(김병갑)=근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계보와 구체적인 면면, 발전 과정을 정리한 학술서. 삼인/2만 원.
- ▲고백(존 그리샴)=저자의 스물네 번째 법정 스릴러 소설. 치어리더 살인범 누명을 쓰고 사형을 앞둔 흑인 미식축구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부조리한 사법제도와 인종차별 문제를 다뤘다. 신원경 옮김/문학수첩/1만 4천 원.
- ▲본 아이덴티티(로버트 러들럼)=2000년대 제작된 할리우드 시리즈 영화 중 인기를 얻고 있는 '본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인 '본 아이덴티티'의 동명 원작 소설. 최필원 옮김/문학동네/전 2권, 각권 1만 2천 500원.
- ▲문학에서 경영을 만나다(이재규)='변신'을 쓴 프란츠 카프카,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 등 문학가들의 시선과 작품 세계에서 드러난 시대별 기업과 경영자 이야기를 담았다. 사파나무/1만 5천 원.
- ▲존 로빈슨의 인생혁명(존 로빈슨)=저자는 글로벌기업의 상사였지만 기득권을 대부분 포기했다. 덜 쓰고 더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자유와 진실, 즐거움을 찾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김은형 옮김/시공사/1만 5천 원.
- ▲밤상 위의 한의학(조은성)=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한 의사가 펴낸 이 책은 올바른 먹거리를 고르는 기준, 몸의 흐름에 맞게 먹는 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울/3만 2천 원.

150년 전 시베리아는...

시베리아 탐험기 / 조지 케넌



시베리아 탐험기 / 조지 케넌

1864년 미국과 러시아는 북미 대륙으로부터 베링 해협을 건너 러시아의 축지 반도와 캅차카 반도 북부를 지나 아무르 강 하구의 니콜라예프스카까지 전진선을 가설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이 공사만 완료되면 미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잇는 전진선이 구축되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1864년 미국 유니온 전신회사의 전신기사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전기공사 탐험대에 참여했다. 이 탐험대는 아무르강 하구에서 베링 해협이나디로 만에 이르는 3천km 구간을 2년간 답사했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탐험 과정, 탐험을 함께 한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문화 등을 담아 1870년 책으로 펴냈다.

당시 뉴욕과 런던에서 동시 출간된 '시베리아 탐험기'는 19세기 탐험문학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사실적이면서도 블랙 유머가 깔린 유쾌한 출판물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책의 서문을 썼던 소설가 매리 맥머트리는 이 책을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견줄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원주민들의 결혼 장면과 가옥 구조 등 논픽션 여행기가 갖추어야 할 현장 정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도 매력적이다. 조지 케넌 지음/정재택 역주/우리역사연구재단/512쪽/2만 5천 원. 천영철 기자 cy@

세계 사상이 218인의 지식 사전

책으로 만나는 사상가들 / 최성일



책으로 만나는 사상가들 / 최성일

리영희 교수는 그의 에세이 '자유인 자유인'에서 루쉰을 이렇게 평했다. "루쉰은 사상을 문학의 형태로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 행동화한, 흔치 않은 지식인 중의 한 분이다." 정신적·사상적으로 고민하던 젊은 시절의 리 교수는 루쉰의 여러 책을 읽으며 '실천하는 지식인'의 삶에 감동했다. 리 교수는 부정관 인위적·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의 고난을 덜어줘야 하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 눈을 떠본 것이다. 루쉰은 우리시대 '사상의 은사'인 리영희 교수를 영태한 위대한 사상가였다.

'책으로 만나는 사상가들'은 인류에게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제시한 218명의 사상가를 조명하는 책이다. 가리타니 고진, 루쉰, 리처드 도킨스, 자크 데리다, 칼 포퍼, 피에르 부르디외, 하워드 진, 한나 아렌트 등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온다. 고종석, 김기협, 김민기, 김삼, 리영희, 박노자, 백수현, 서경석, 신숙우, 우석훈 등 한국인 10명도 포함돼 있다.

출판평론가인 저자는 13년 2개월 동안 사상가들의 저서, 번역서 리뷰와 경험담을 곁들여 정리했다. 그동안 다섯 번에 걸쳐 출간된 책들을 '사전형 책'으로 묶었다. 최성일 지음/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792쪽/3만 8천 원. 김상훈 기자 seah@